

“승보종찰 송광사의 위상을 되찾자”

보조사상연구, 11월 10일 송광사서 학술대회

고려불교를 새로이 세운 보조사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펼쳐진 도량 송광사. 개창 이후 16국사를 비롯해 근대 효봉 구산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하며 승보종찰의 위상을 다진 송광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사진)은 11월 10일 순천 송광사 사자루에서 제23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는 최근 송광사를 비롯한 한국불교계가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여 학자들이 송광사의 근대사회의 역할과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10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광사는 한국불교 최초의 템플스테이,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국제선선대, 수련대회, 신행단체인 불일회 조직 등 불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송광사와 한국불교계가 미래에 나갈 방향을 짚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발표에는 △김광봉 총남대 교수가 ‘송광사의 역사적 의의’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립 송광사의 수행문화’ △김일동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송광사의 연혁과 문화재’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송광사의 포교전략과 그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송광사 온전한 의미 근대역할에 있다 먼저 김광봉 총남대 교수는 ‘송광사의 역사적 의의’ 주제 발표에서 송광사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눠 매 시기별 사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김 교수는 송광사의 역사적 정체성은 ‘보조사상’의 전통에서 찾는 반면 근대의 송광사 활동에서도 송광사의 의의를 찾는다.

김 교수는 “송광사의 역사적 의의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부휴계’ 활동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재고시킨 역할과 1969년 구산 스님이 주장한 ‘제2 정혜결사’의 의미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사 수행 브랜드 가치 있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송광사의 수행문화에 대해 조명한다. 고 교수는 김광봉과 정혜사의 수행을 알아보고, 수선사와 송광사의 전통, 또 선법 확산과 학술연찬의 지형을 논한다. 고 교수는 “송광사가 일찍부터 문서포교와 문화지형 형성에 뛰어난 시기를 지닐 수 있었던 데는 불일법정과 그를 잇은 문인가풍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일회)와 보조사상연구원을 통해 선법 확산과 학술연찬의 지평을 넓혀 그 존재를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럼에도 그런 스님들의 입적 이후 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 미약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송광사가 증명 ‘조계종’의 시원이기만 브랜드 가치를 지닌 만큼 수행전통을 살린 위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송광사 대중 위해 관욕소 설치

김일동 송광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송



김 교수는 송광사의 역사적 정체성은 ‘보조사상’의 전통에서 찾는 반면 근대의 송광사 활동에서도 송광사의 의의를 찾는다.



송광사 전경. 송광사가 지닌 수행문화·근대 포교 저변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행브랜드 제고 가능

불일회 등 기반 활용해야

시대 선지식 양성 노력 필요

광사의 연혁과 문화재에 대한 고찰에서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지정현황과 보존처리 과정을 소개한다.

김 학예연구사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송광사만의 독특한 건물인 세월각(洗月閣)과 적주당(蔭珠堂)에 대해 “영가들의 목욕을 위한 공간으로 관욕소가 송광사에 건립된 이유는 영가의 업을 씻는다는 의미와 경제적으로 넘쳐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영가천도의 기회를 늘려준다”고 말했다.

이미 불일회 등 기반 있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송광사의 포교 환경과 구산 스님의 포교활동을 분석한다.

김 교수는 “1983년 송광사가 사찰을 정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했지만 반대로 외연을 확대하고 세계각처로 나가려는 진취성을 상실했다”며 “특히 구산 스님의 업적이 축소되도록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일회 지부나 회원들이 지속 증가하지 못한 것도 사중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불일회가 국내외 20개 지부를 결성하고 스위스와 미국, 캐나다 등지에 지부를 열고 외국인들이 출가할 정도로 해외를 구도 만큼 송광사는 과거 잘했던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더 많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최연식 목포대 교수,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이계표 조선대 교수, 근현대불교사연구소장 진관 스님, 오종근 동신대 교수, 서종원 단국대 연구교수, 이재수 동국대 박사,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오 교수는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신앙이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믿음이 참된 나를 찾으려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현대 종교계에 많다”며 “대화와 세력화가 그 것으로 한국 교회, 사찰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권명수 한신대 교수는 믿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갖는 특징들을 개인 정신의 발달 단계로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임스 로저의 ‘변형이론’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질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믿음은 충분히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믿음체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신앙이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믿음이 참된 나를 찾으려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현대 종교계에 많다”며 “대화와 세력화가 그 것으로 한국 교회, 사찰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권명수 한신대 교수는 믿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갖는 특징들을 개인 정신의 발달 단계로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임스 로저의 ‘변형이론’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질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믿음은 충분히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믿음체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파·초의 논쟁 관련 불서(佛書)발간

조선 후기 한국 선종사의 대표적 논쟁으로 기록된 ‘백파-초의 논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파 스님의 <선문수경(禪文手鏡)>과 초의 스님의 <선문사변만어(禪文四辨漫語)>가 완역됐다.

동국대출판부(편집장 심종섭)는 최근 한국불교전서 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백파 스님의 <선문수경>과 초의 스님의 <선문사변만어> 완역본을 펴냈다.

동국대출판부(편집장 심종섭)는 최근 한국불교전서 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백파 스님의 <선문수경>과 초의 스님의 <선문사변만어> 완역본을 펴냈다. 성리학이 주도하는 조선 후기 불교사 회에서 당대 선불교의 정통성(조사선, 간화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백파 스님은 <선문수경>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반박 논리를 펼 것이 바로 일지암의 초의 스님이었다.

백파 스님의 삼종선 이론은 임제선의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객관화해 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기존의 선



이론은 이종선, 즉 의리선(여래선), 격의선(조사선)의 선분류법인데 반해 백파 스님은 의리선-여래선-조사선의 삼종선 구도를 세워 깨닫고 수행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리선, 중근기의 중생이 본분과 향상을 깨닫는 것인 여래선, 상근기의 중생이 진공과 묘유를 향상을 깨닫는 것인 조사선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초의 스님은 교와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며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반박했다. 이 논쟁의 와중에 주사 김정희가 나서 백파 스님과 한판의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인다.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유물 4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0월 30일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腹藏) 유물’을 비롯한 경남 함천 해인사의 불교 성보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1777호로 등재된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 유물은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이 복장한 유물 일체를 말한다.

보물 1778호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보물 1780호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8권 37점의 전적(典籍)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0월 30일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腹藏) 유물’을 비롯한 경남 함천 해인사의 불교 성보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1777호로 등재된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 유물은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이 복장한 유물 일체를 말한다.

보물 1778호 법보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

보물 1780호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복장 전적은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8권 37점의 전적(典籍)이다.

“정각원은 한국근대사 역사 담고 있어”

동국대 정각원, 첫 학술대회

“근대사의 질곡을 담은 정각원에 대한 새로운 위상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62년 대학선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정각원의 근대사적 위상을 고찰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10월 27일 정각원 건축물인 옛 경희궁 승정전(서울 유형문화재 20호)을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승정전의 불교사적 의의’ 발표에서 “정각원 건물인 경희궁의 정전인 승정전은 광해군에 의해 경덕궁으로 창건돼 1617년 이후 경희궁이라 불려왔다”고 밝혔다.

승정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궁궐이 해체되며 일부 부재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경성중학교 교실로 사용됐으며,



정각원의 경희궁 승정전일 때의 모습

본당은 남산의 일본사찰인 조계사 대웅전으로 사용됐다.

황 교수는 “승정전은 동국대 만해광장에 옮겨져 조동종 조계사 본당으로 사용됐으며, 해방후 조명기 교수가 필동 교사로 양도했다”면서 “정각원의 역사는 1617년(광해군 9) 경희궁 승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정각원의 역사와 위상’ 발표에서 “정각원은 종립대 법당의 의미를 넘어 한국 정신사 근간인 불교사상을 선양하고 있는 곳”이라며 정각원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종교적 믿음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은

밝은사람들, ‘믿음’ 주제로 학술연찬회

“믿음과 수행, 그리고 실천은 둘이 아니기에 무비판적 맹신보다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의 본질인 ‘믿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나날이 커지는 종교 갈등 상황에서 믿음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고찰하는 자리가 열렸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믿음’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다섯 명의 종교학자들이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불교에서의 믿음과 종교심리, 비교종교에서의 믿

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실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초기 불교경전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종류와 의미, 믿음과 깨달음과의 관계, 믿음과 성인 성취 및 열반의 관계를 밝혔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의 믿음은 무비판적 맹신이 아니라 체험과 검증,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석길암 금강대 교수는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을 통해 믿음의 과정에 대해 고찰

했다. 석길암 교수는 “이해하고 믿는 이성적 방식과 믿고 이해하는 감정적 방식이 둘 다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선불교에서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전제임을 강조하며 “믿음과 수행은 둘이 아니기에 기복불교를 넘어 수행을 통한 감동의 불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화, 세력화가 심층믿음 장애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표층과 심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도 ‘표층 믿음’과 ‘심층 믿음’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오 교수는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신앙이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믿음이 참된 나를 찾으려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현대 종교계에 많다”며 “대화와 세력화가 그 것으로 한국 교회, 사찰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권명수 한신대 교수는 믿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갖는 특징들을 개인 정신의 발달 단계로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임스 로저의 ‘변형이론’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질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믿음은 충분히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믿음체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신앙이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믿음이 참된 나를 찾으려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현대 종교계에 많다”며 “대화와 세력화가 그 것으로 한국 교회, 사찰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권명수 한신대 교수는 믿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갖는 특징들을 개인 정신의 발달 단계로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임스 로저의 ‘변형이론’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질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믿음은 충분히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믿음체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표층과 심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도 ‘표층 믿음’과 ‘심층 믿음’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오 교수는 “종교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신앙이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믿음이 참된 나를 찾으려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현대 종교계에 많다”며 “대화와 세력화가 그 것으로 한국 교회, 사찰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권명수 한신대 교수는 믿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갖는 특징들을 개인 정신의 발달 단계로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제임스 로저의 ‘변형이론’을 보면 믿음의 성장은 질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믿음은 충분히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믿음체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면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배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개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인방문언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신력),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석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름 · 식음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탕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탕화, 홍탕화, 채색)
◎ 현재 : 종중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화 02)491-5336 02)494-7478
공방 031)595-6558 031)591-7478
원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각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강원을 개설합니다.

경전과목

- ◆ 사집반
- ◆ 초발심사경문 (원호스님 발심장 부문)
- ◆ 치문, 도서, 선요
- ※ 특강 : 선문 활요, 금강경

대 상 각종 종교단체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 성별에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강 사 도열스님 (통도사 강원, 월정사 강원, 마곡사 강원, 강주 역임, 범어사 중장 역임)

불교의식 예불, 대령관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일예 강의

* 스님이 되셨으나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종단을 초월한 교육원으로써 수요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금청산 금륜사 불교전문 강원
문의 055)383-5830, 055)383-7009 / 011-556-583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번지